

국 어

총평

2026년 지방직 9급 국어는 '출제기조 전환'의 방향을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시험이었다. 단순한 맞춤법·문법 암기보다 독해력, 논리적 추론 능력, 공공언어 이해 및 문맥 판단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조건 추론과 논증평가, 논지 강화 등 PSAT형 사고력 문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수험생 간 변별력을 확보한 시험으로 평가된다.

영역별 출제 비율

영역	문항	비율
독해(내용·추론·논지)	8	40%
논리·추론	4	20%
공공언어·어문규정	2	10%
어휘·문맥 의미	3	15%
개요·배열	2	10%
문법·국어학	1	5%

국어에서 상 난도 문항은 모두 '논리·논증형' 문제였다. 이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순한 국어 지식이나 암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으며, 조건명제, 대우, 귀류법, 논지 강화 등 PSAT형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상위권 수험생을 가르는 핵심 변별 문항으로 기능했습니다.

이번 국어는 평균 점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국어 평균: 약 78~82점

85점 이상: 경쟁력 있는 점수

90점 이상: 상위권 확보 가능 수준

1.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

- 명사의 반복된 나열을 피하고 적절한 조사나 어미를 사용할 것.
- 대등한 것끼리 연결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 올바른 피동 표현을 사용할 것.
- 의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하지 말 것.

<공문서>

○○시청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2026년 ○○시립도서관 신규 사서 교육 안내

- 시립도서관 신규 사서 여러분의 원활한 적응을 기원합니다.
- 부서별 ㉠신규 사서 업무 적응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 내용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불편의 축소 방안이 포함됩니다.
-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으며, 수강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이달 30일입니다. 이번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청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엄수하기 바랍니다.

- ㉠: 신규 사서의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
- ㉡: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불편을 축소하는
- ㉢: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으며
- ㉣: 제출 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정답: ㉡

- 출제영역: 어문 규정 → 공공언어 바로 쓰기
- 세부유형: 공공문서의 어법 및 표현 수정
- 난도: 중
- 출제의도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을 실제 공문서에 적용하여 명사 나열, 대등한 연결 구조, 피동 표현, 중복 표현 등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공공기관 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 오류를 찾아 수정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선지해설

- ㉠: 「신규 사서의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 → 적절하다. 원문의 '신규 사서 업무 적응 교육'은 명사가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의미가 다소 불명확하다. '신규 사서의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고치면 조사와 관형어를 사용하여 의미가 자연스럽고 명확해진다.
- ㉡: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불편을 축소하는」 → 적절하지 않다. (정답) 원문의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불편의 축소'는 연결 구조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그러나 제시된 수정안인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불편을 축소하는' 역시 구조가 서로 대응되지 않는다. 앞부분은 명사구(편의 확대)이고, 뒷부분은 용언구(불편을 축소하는)이므로 공공언어 원칙에서 요구하는 대등한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바르게 고치려면 다음과 같이 구조를 통일해야 한다.

-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불편을 축소하는
-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확대와 불편 축소

- ㉢: 「교육은 분기별로 계획되어 있으며」 → 적절하다. '계획되어져 있으며'는 이중 피동 표현이다. '계획되어 있으며'로 수정하면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제거하여 자연스러운 공공언어가 된다.

- ④ ㉔: 「제출 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 → 적절하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자연스러운 관형 구조이며, '신청서'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제출 기한을 엄수하기 바랍니다'는 공문서에서 사용 가능한 표현이므로 수정 자체는 적절하다.

2. (가)~(라)를 맥락에 맞추어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가)정독을 위해서는 조용한 공간에서 홀로 부동자세를 취해야 한다. 근대 사람들은 가정과 학교, 도서관과 같은 근대적 공간에서 책 읽는 자세를 집단적으로 훈련하며 정독에 익숙해져 갔다.

(나)책에 사진이나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했고, 구두점·띄어쓰기의 도입과 더불어 문자를 보충하는 여러 부호가 삽입되는 등 새로운 편집 형식이 등장한 것이다.

(다)근대 시기 책 읽기는 책의 내용을 입으로 외워서 연기하듯이 말하거나 반복적으로 암송하는 방식에서, 눈으로 꼼꼼하게 단어들을 읽으며 문장의 의미를 파헤쳐 가는 방식, 즉 정독으로 이행해 갔다. 이런 책 읽기 방식에는 책을 읽기 위한 공간과 거기에 맞는 자세가 필요했다.

(라)훈련을 통해 정독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글 읽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읽어내는 독서 방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독서 방식에 적합하도록 텍스트 편집 기술이 발전하고 편집 형식이 변화했다.

- ① (다)~(가)~(라)~(나)
② (다)~(라)~(가)~(나)
③ (라)~(나)~(가)~(다)
④ (라)~(다)~(가)~(나)

정답: ①

- 출제영역: 독해 → 글의 배열
- 세부유형: 문단의 논리적 순서 배열
- 난도: 중
- 출제의도

제시된 문장들의 주제 전개 방식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 가장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을 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지시어, 접속어, 인과 관계를 활용한 문단 배열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다)~(가)~(라)~(나) → 적절하다. (다)에서 근대 시기 책 읽기가 정독으로 변화하였음을 제시하고, 이어 (가)에서 정독에 필요한 공간과 자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후 (라)에서는 정독에 익숙해진 결과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음을 설명하고, 마지막 (나)에서 '새로운 편집 형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므로 가장 자연스러운 배열이다.

3. 다음 글의 (가)~(다)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기호는 어떤 대상과 일정한 의미가 결합한 것이다. 기호는 대상과 의미, 즉 기표와 기의의 관련성에 따라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 상징적 기호로 나뉜다. 도상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시각적 유사성이 있는 기호이고, 지표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과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기호이다. 반면 상징적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관습적일 뿐, 시각적 유사성이나 실제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호이다. 예를 들어 신호등 체계는 대표적인 (가)의 사례이다. 신호등에서 빨강은 '멈춰라', 초록은 '가라'를 의미하는데, 색채라는 시각적 기표가 그것의 기의와 실제적인 연관성이나 유사성이 없고 다른 색깔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모티콘 '^^'는 웃는 얼굴과 닮았기 때문에 '웃음'을 나타내고, 우리나라 지도는 우리나라 영토의 모습을 그려 냈기 때문에 (나)의 사례이다. 곰이 지나간 흔적인 곰 발자국을 보고 사냥꾼이 곰을 쫓게 되었다면, 그 발자국은 '곰이 지나갔다'는 사실과 인과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다)의 예이다.

(가) (나) (다)

- ① 도상적 기호 상징적 기호 지표적 기호
②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 상징적 기호
③ 상징적 기호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
④ 상징적 기호 지표적 기호 도상적 기호

정답: ③

- 출제영역: 독해 → 기호학(개념 이해)
- 세부유형: 개념 적용 및 사례 판단
- 난도: 중
- 출제의도

기호를 도상적 기호, 지표적 기호, 상징적 기호로 구분하는 기준을 이해하고, 각각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유사성, 인과성, 관습성이라는 기준으로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③ (가) 상징적 기호 / (나) 도상적 기호 / (다) 지표적 기호다. 신호등의 색은 의미와 관습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징적 기호이다. 이모티콘 '^^'와 지도는 실제 대상과 시각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도상적 기호이다. 곰 발자국은 곰이 지나갔다는 사실과 실제적·인과적 관계를 가지므로 지표적 기호에 해당한다.

4. <지침>에 따라 <개요>를 작성할 때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 침>

- 서론은 핵심 개념과 연구 목표를 제시할 것.
- 본론은 2개의 장으로 구성하고 하위 절은 각 장의 제목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구성할 것.
- 결론은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순서대로 제시할 것.

<개 요>

- 제목:귀농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 지원 전략
- 1장서론
 - 1절귀농 청년의 개념
 - 2절 _____ (가)
- 2장귀농 청년의 창업 지원 방안
 - 1절스마트팜 창업 및 임대 농장 보조금 지원
 - 2절 _____ (나)
- 3장귀농 청년의 주거 지원 방안
 - 1절초기 정착을 위한 입주비 지원
 - 2절 _____ (다)
- 4장결론
 - 1절귀농 청년의 원활한 지역 사회 정착
 - 2절 _____ (라)

- ① (가):귀농 청년의 창업·주거 지원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 ② (나):농산업 창업자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③ (다):미사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
- ④ (라):귀농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대

정답: ③

- 출제영역: 독해 → 개요 작성
- 세부유형: 개요의 위계 구조 및 내용 배열
- 난도: 중
- 출제의도

제시된 작성 지침을 바탕으로 서론·본론·결론의 기능을 이해하고, 장과 절의 통일성 및 위계 구조에 맞는 내용을 배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본론의 하위 절이 상위 장의 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가): 귀농 청년의 창업·주거 지원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 → 적절하다. 서론은 핵심 개념과 연구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침에 부합한다. 1절에서 '귀농 청년의 개념'을 설명한 뒤, 2절에서 연구의 목표인 창업·주거 지원 전략의 모색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 ② (나): 농산업 창업자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적절하다. 2장의 제목이 '귀농 청년의 창업 지원 방안'이므로,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은 창업 지원 정책에 해당하여 장의 주제와 일치한다.
- ③ (다): 미사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 → 적절하지 않다. (정답) 3장의 제목은 '귀농 청년의 주거 지원 방안'이다. 그러나 '미사

용 주택지 정리를 통한 농지 확대'는 주거 지원이 아니라 농지 확보 및 토지 이용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장의 주제와 통일성을 해치므로 적절하지 않다.

3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공공임대주택 확대
- 빈집 리모델링 지원
- 주거 안정 자금 지원
- 생활 기반 시설 확충

- ④ (라): 귀농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대 → 적절하다. 결론은 기대 효과 → 향후 과제의 순서로 구성해야 한다. 1절의 '귀농 청년의 원활한 지역 사회 정착'은 기대 효과에 해당하며, 2절의 '귀농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확대'는 향후 과제로 적절하다.

5. 다음 글의 ㉠~㉣ 중 문맥상 어색한 곳을 수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은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크다. 기체는 분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고 액체, 고체 순으로 그 뒤를 잇는다. 그러므로 같은 물질의 질량이 동일하다면,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크고, 그다음이 액체이고, 고체는 그 부피가 가장 작다. 그러나 물은 예외이다.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커지고 ㉡고체인 얼음이 되면 오히려 부피가 작아진다.

빙산이 녹으면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 빙산은 바다에 떠 있는데 이때 빙산의 일부가 수면 위로 나와 있다. 빙산이 녹아서 생긴 물의 부피는 고체였을 때 빙산의 부피보다 약간 작다. 수면 위로 나와 있던 빙산이 녹아서 생긴 물이, 낮아진 해수면만큼을 채우기 때문에, 결국 ㉢해수면의 높이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육지에 있는데, 빙산이 녹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육지의 빙하도 녹게 된다. 육지의 빙하가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바닷물의 양이 증가하여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 ㉣빙하가 녹을 정도의 기온이라면 바닷물 자체도 열팽창을 해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 ①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작다
- ② ㉡:고체인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커진다
- ③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 ④ ㉣:빙하가 녹지 않을 정도의 기온이라면

정답: ②

- 출제영역: 독해 → 고쳐쓰기(문맥 수정)
- 세부유형: 문맥에 맞는 내용 수정
- 난도: 중
-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뒤 문맥 및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찾아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문장 간의 논리적 일관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작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은 일반적으로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분자 사이의 간격이 커져 부피도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원문의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부피가 크다」가 옳은 표현이며 수정할 필요가 없다.
- ② ㉡: 「고체인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커진다」 → 적절하다. (정답) 본문에서는 「고체인 얼음이 되면 오히려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물은 액체에서 고체

(얼음)로 변할 때 분자 배열이 육각형 구조를 이루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예의 물질이다. 따라서 '고체인 얼음이 되어도 부피가 커진다.'로 수정해야 문맥과 과학적 사실에 맞는다.

- ③ ㉔: 「해수면의 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진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은 빙산이 녹더라도 원래 밀어 올리던 바닷물의 양과 거의 같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내용은 문맥과 반대된다.
- ④ ㉕: 「빙하가 녹지 않을 정도의 기온이라면」 → 적절하지 않다. 본문은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을 정도가 되면 바닷물도 함께 열팽창하여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빙하가 녹지 않을 정도의 기온'으로 수정하면 앞뒤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

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성(姓)과 이름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고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묶어서 부르는 성명은 하나의 고유 명사라서, 성과 이름을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은 거의 한 음절로 되어 있어서 직관적으로 한 단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도 성에 붙여 쓴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 예컨대, '선우주', '남궁수' 같은 성명은 '선우주', '남-궁수'인지 '선우-주', '남궁-수'인지 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성과 이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선우 주'나 '남궁 수'와 같이 띄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규정에서는 '선우', '독고', '황보'와 같이 두 글자 성만을 예로 들고 있으나,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여지가 있으면 한 글자 성도 띄어 쓸 수 있다. 한편,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이나 관직명 등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써야 한다.

- ① '황보영'의 성이 '황'일 때 '황 보영'으로 쓸 수 없다.
- ② '최서현'의 성 '최' 뒤에 호칭어 '군'을 쓸 때 '최 군'으로 쓴다.
- ③ '김구'의 호인 '백범'을 성명 앞에 쓸 때 '백범 김구'로 써야 한다.
- ④ '허초희'의 호인 '난설헌'을 성 '허' 뒤에 쓸 때 '허난설헌'으로 쓴다.

정답: ①

- 출제영역: 어문 규정 → 한글 맞춤법
- 세부유형: 성명의 띄어쓰기 규정 적용
- 난도: 중
-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의 성과 이름의 띄어쓰기 원칙과 예외 규정을 이해하고, 성명·호(號)·호칭어의 띄어쓰기 규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수 있는 경우에 띄어쓰기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황보영'의 성이 '황'일 때 '황 보영'으로 쓸 수 없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성과 이름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때는 띄어 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황보영'은

- 황보 + 영(두 글자 성)
- 황 + 보영(한 글자 성)으로 모두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성과 이름의 경계가 혼동될 수 있는 성명이다. 따라서 실제 성이 '황'인 경우에도 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황 보영'으로 띄어 쓸 수 있다. 즉, '황 보영'으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의 고전 서사문학에는, 지하세계에 살고 있는 괴물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많다. 『홍길동전』, 『김원전』과 같은 소설뿐 아니라, 흔히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로 불리는 많은 설화들이 있다. 여기에서 지하국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위협과 혼란의 세계를 상징한다.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지상은 인간이 질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이고, 천상은 이상적이고 완성된 세계로 인식된다. 이에 비해 지하세계는 어둡고 음험한 존재들이 머무는 장소로 설정된다. '지하국'에 '대적'이라는 개념이 합해지면, 그 괴물은 단순한 외부의 적이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악, 부정, 부조리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지하국에서의 전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모두가 겪어야 할 보편적 과제를 나타낸 것이다. 이 서사에서 중요한 점은, 괴물을 물리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승리의 원인,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야기 속 해답은 의외로 소박하다. 주인공은 특별한 물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것으로 괴물을 제압한다. 예컨대 항상 몸에 지녔던 칼집의 가죽이나, 하찮은 풀로 만든 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외부에 있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괴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그 실체가 드러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지하국의 대적을 퇴치하는 서사는 영웅이 막강한 괴물을 처치하는 특별한 서사가 아니라, 인간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서사라 할 수 있다. 이 서사를 통해, 우리는 지하국이 두려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성장이 가능한 시험의 장소이며, 그 시험의 해답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밑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성장에 있다.
- ② 고전 서사에서 주인공은 천상적 존재의 도움이 아니라 현실적 인물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승리한다.
- ③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에서 주인공은 괴물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④ 전통적인 세계관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와 비인간적 존재가 사는 천상 세계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다.

정답: ①

- 출제영역: 독해 → 내용 추론
- 세부유형: 중심 내용 및 세부 내용 추론
- 난도: 중
- 출제의도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종합하여 글의 중심 논지와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고전 서사 속 지하국의 상징성, 주인공의 성장, 문제 해결 방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성장에 있다. → 적절하다. 제3문단에서 “괴물을 물리치는 행위가 타인을 위한 정의 실현에 앞서 주인공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이룬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도 이 서사는 인간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보편적 서사라고 하였으므로, 서사의 핵심은 인간 자신의 성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고전 서사에서 주인공은 천상적 존재의 도움이 아니라 현실적 인물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승리한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특별한 물건이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지니고 있던 것으로 괴물을 제압한다.”고 하였다. 즉 현실적 인물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 ③ 지하국 대적 퇴치 서사에서 주인공은 괴물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괴물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괴물을 우회하거나 회피하여 해결한다는 내용은 본문과 반대이다.
- ④ 전통적인 세계관은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와 비인간적 존재가 사는 천상 세계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된다. → 적절하지 않다. 문은 지상(인간의 현실 세계), 천상(이상적 세계), 지하세계(혼란과 악의 세계)의 삼원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 세계와 천상 세계만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구조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8. 글의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자신의 방은 자기가 알아서 청소해야 한다.
- ② 나는 감기에 걸려서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었다.
- ③ 어떤 부모는 자식을 전부로 알아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 ④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정답: ④

- 출제영역: 어휘 → 문맥적 의미
- 세부유형: 다의어 의미 구별
- 난도: 하
- 출제의도

문맥 속에서 동사 ‘알다’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파악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사례를 고르는 문제이다.

㉠의 의미

그 시험의 해답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다’는 어떤 사실이나 의미를 깨닫다, 이해하다, 인식하다는 뜻이다.

• 선지해설

- ① 자신의 방은 자기가 알아서 청소해야 한다.
→ ‘알아서’는 스스로 판단하여의 뜻이다. ㉠과 다르다.
- ② 나는 감기에 걸려서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었다.
→ ‘알다’는 맛을 느끼거나 분별하다는 뜻이다. ㉠과 다르다.
- ③ 어떤 부모는 자식을 전부로 알아 모든 것을 다 해 준다.
→ ‘알다’는 ~로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이다. ㉠과 다르다.
- ④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 ‘알다’는 깨닫다, 이해하다, 인식하다는 뜻이다. ㉠과 가장 가깝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외부 사건에 대한 인간의 생리적인 반응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다. 생리적 반응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감정을 느끼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명명하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신체적 변화를 지각한다. 그러나 같은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의 움직임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자신을 신나고 재미있게 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한 후, 전자는 이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후자는 이를 ‘즐거움’이라는 감정으로 ㉡명명한다. 같은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위협으로 해석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재미로 해석하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감정은 외부 사건 때문에 수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그 순간 우리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은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정은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가변적 경험이다.

9. 밑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체 반응을 조정하는 것이 감정 관리의 핵심이다.
- ②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에 의해 좌우되는 능동적인 경험이다.
- ③ 감정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 ④ 감정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의 노력으로 감정 반응을 바꿀 수 없다.

정답: ②

- 출제영역: 독해 → 중심 내용 파악
- 세부유형: 중심 내용(주제) 추론
- 난도: 중
- 출제의도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핵심 주장(주제문)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사례와 결론의 관계를 이해하여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중심 생각을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신체 반응을 조정하는 것이 감정 관리의 핵심이다. → 적절하지 않다. 글에서는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않는다. 핵심은 동일한 생리적 반응이라도 어떻게 해석하고 명명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 ② 감정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에 의해 좌우되는 능동적인 경험이다. → 적절하다. 글은 기존의 ‘감정은 외부 사건에 대한 생리적 반응’이라는 관점을 제시한 뒤, 새로운 관점으로 감정은 외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명명하느냐에 따라 구성되는 능동적인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마지막 문단에서도 “감정은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명명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된다.”, “감정은 고정된 반응이 아니라 가변적 경험이다.”라고 결론짓고 있으므로 글의 중심 내용에 해당한다.
- ③ 감정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 생리적인 반응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 적절하지 않다. 글의 논리는 해석 → 명명 → 감정 경험의 순서이다.

즉, 생리적 반응을 먼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을 '두려움', '즐거움'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지, 명명이 해석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인과관계를 거꾸로 제시한 선지이다.

- ④ 감정은 타고난 기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개인의 노력으로 감정 반응을 바꿀 수 없다. → 적절하지 않다. 글에서는 감정이 외부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의미 부여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경험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감정이 타고난 기질에 의해 고정된다는 설명은 본문의 내용과 정반대이다.

10. 밑글의 ㉠ ~ ㉣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나타났다 ② ㉡: 이름 짓는다
③ ㉢: 깨닫는 ④ ㉣: 바뀔 수 있는

정답: ③

- 출제영역: 어휘 → 문맥적 의미
- 부유형: 문맥에 맞는 유의어(바꿔 쓰기)
- 난도: 하
- 출제의도

문맥 속에서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대체할 수 있는 유의어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단순한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적 의미와 쓰임을 고려하여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 등장했다 → 나타났다

'등장하다'는 새로운 대상이나 현상이 나타나다라는 뜻이다. 글에서는 새로운 감정 이론이 제시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나타났다'로 바꾸어도 문맥상 의미가 유지된다.

- ② ㉡: 명명한다 → 이름 짓는다

'명명하다'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이다. 글에서는 생리적 반응을 '두려움', '즐거움' 등의 감정으로 이름 붙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름 짓는다'로 바꾸어도 적절하다.

- ③ ㉢: 부여하는 → 깨닫는 (정답)

'부여하다'는 어떤 대상에 의미나 가치 등을 더하거나 갖게 하다라는 뜻이다. 반면 '깨닫다'는 사실이나 이치를 이해하거나 알아차리다라는 의미이다. 글에서는 우리가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깨닫는'으로 바꾸면 문맥과 의미가 달라져 적절하지 않다.

- ④ ㉣: 가변적 →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은 변할 수 있는, 일정하지 않은이라는 뜻이다. 글에서는 감정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한 경험임을 의미하므로 '바뀔 수 있는'으로 바꾸어도 문맥상 적절하다.

11. (가)~(다)를 전제로 할 때 빈칸에 들어갈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마음이 있는 것은 모두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는다.

(나)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는 것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다)모든 식물에게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로봇에게는 마음이 없다.

따라서 _____ .

- ①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②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③ 로봇과 식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④ 로봇과 식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정답: ①

- 출제영역: 논리 → 명제 추론
- 세부유형: 삼단논법(연역 추론)
- 난도: 중
- 출제의도

제시된 전제들의 포함 관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조건 명제의 연쇄 추론과 대우 관계를 적용하여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적절하다. (정답)

(가)와 (나)를 연결하면,

- 마음이 있다 →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한다.
-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한다 →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 마음이 있다 →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또한,

- 마음이 없다 →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는다.
-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는다 →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 마음이 없다 →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다)에 따르면 모든 식물은 마음이 있고, 모든 로봇은 마음이 없으므로,

- 식물 →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로봇 →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② 로봇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식물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적절하지 않다. 전제에서 도출되는 결론과 정반대이다. 로봇은 마음이 없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고, 식물은 마음이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③ 로봇과 식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 적절하지 않다. 식물은 마음이 있으므로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고, 결국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식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로봇과 식물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 적절하지 않다. 식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로봇은 마음이 없으므로 인간과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고 도덕적 지위도 갖지 않는다.

[12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설은 증거물에 대한 이야기이며, ㉠ 어떤 사건을 증거물에 담아 전하는 이야기이다. 뒷산의 바위, 마을의 연못, 산사의 종 같은 증거물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설은 허구적이지만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서구에서는 전설의 어원을 'legere(읽다)'에서 찾기도 한다. 종교 의식 중에 낭독되는 ㉡ 성인이나 순교자의 신성한 기적 이야기가 점차 사실이라고 믿어지게 되면서 특정한 때와 장소, 주인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로 변하였다.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의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이야기 양식이 전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설과 역사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구성하는 반면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는 점에서 뚜렷이 구별된다. 그렇지만 둘 다 이야기를 만들어 현실에 대한 언어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공백을 채운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 공백을 사실적으로 채우는 이야기이나, ㉢ 허구적으로 채우는 이야기이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식적 역사 기술의 원칙과 전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설은 큰 범주에서 역사로서 기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설은 공식적인 역사와 거리를 가진다.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인 역사와 뚜렷이 구별되는 이야기를 만들고 전하였다. 과거의 공백에 특정한 시각과 욕망을 투영하여, 공식적인 역사 기록에서 누락되거나 감추어져 있던 일을 ㉣ 자신들의 목소리가 담긴 이야기로 만들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공식적 역사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자신들만의 역사를 구축하며 오늘날까지 전설의 전승력을 유지해 왔던 것이다.

12.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설은 역사 기술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 공식적인 역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② 역사적 이야기는 신성한 이야기에서 전설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출된다.
 ③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설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한다.
 ④ 증거물이 사라진 후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정답: ③

- 출제영역: 독해 → 내용 이해
- 세부유형: 세부 내용 및 추론
- 난도: 중

● 출제의도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설과 역사의 공통점과 차이점, 전설의 성격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글의 중심 개념인 전설의 역사성과 허구성을 바탕으로 각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전설은 역사 기술의 원칙이 확립된 이후 공식적인 역사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공식적 역사 기술의 원칙과 전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설은 큰 범주에서 역사로서 기능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즉, 역사 기술의 원칙이 확립되기 이전에 역사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므로 전지는 시점을 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② 역사적 이야기는 신성한 이야기에서 전설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산출된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에서는 신성한 이야기에서 역사적 이야기로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전설이 산출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역사적 이야기가 전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설이 형성된 것이므로 인과관계를 잘못 이해한 선지이다.
 ③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설이 되기도 하고 역사가 되기도 한다. → 적절하다. 본문에서는 역사는 과거의 일을 사실적으로 구성하고, 전설은 허구적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즉, 동일한 과거의 공백을 사실적으로 채우면 역사가 되고, 허구적으로 채우면 전설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한 이해이다.
 ④ 증거물이 사라진 후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은 증거물이 사라진 이후라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설은 증거물을 바탕으로 전승되며, 전설 향유층은 공식적인 역사에서 누락된 내용을 자신들의 시각으로 이야기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물이 사라진 후'라는 내용은 본문에 근거가 없다

13. 밑글의 ㉠ ~ ㉣ 중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 출제영역: 어휘 → 문맥적 의미
- 세부유형: 문맥상 의미 파악(다의어)
- 난도: 중
- 출제의도

문맥 속에서 사용된 어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같은 단어나 표현이라도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문맥 속에서 사용된 비유적 의미와 본래 의미를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② ㉡ 성인이나 순교자의 신성한 기적 이야기 → 이질적이다. ㉠의 '성인'은 덕성과 신앙이 뛰어나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고유한 인물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 ㉢, ㉣은 모두 행위나 서술 방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방식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 따라서 ㉠만 사람(대상)을 지칭하는 명사로 사용되어 문맥상 의미가 가장 이질적이다.

14.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광야」는 “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로 시작된다. 이 시의 해석과 관련해서 1연 3행의 시구,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들렸으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대체로 이를 수사적 의문 ‘들렸겠는가?’로 파악하여 닭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석해 왔다. 그런데 “들렸으랴”가 ‘들렸으리라’의 축약형이며, 이 시구를 ‘들렸을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닭이 울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과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갈렸다. 입장에 따라 “어데”의 의미 해석도 달라지게 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선가’라는 뜻이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어디 그뿐인 줄 알아?’에서 쓰인 ‘어디’와 같이 되물어 강조할 때 쓰는 감탄사로 해석된다. “닭”에 대해서도 두 입장은 해석을 달리한다. 닭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논자들에게 닭은 소리를 내어 우는 동물을 의미할 뿐이다. 이들에게 시의 첫 연은 아무 소리 없는 정적 그대로의 광야를 나타낸다. 하늘이 처음 열린 날 어찌 닭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겠느냐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닭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쪽에서는 실제 동물로서의 닭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새벽을 알리는 소리의 매개체로서의 닭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해석하면 시의 첫 연은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 어떤 지고한 소리가 울리고 있는 광야를 그려 낸다.

- ① “어데”를 ‘어디선가’로 해석하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 ② 1연 3행을 수사적 의문으로 보는 입장은 개벽의 시간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 ③ “들렸으랴”를 ‘들렸으리라’의 축약으로 보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를 개벽을 알리는 소리로 파악한다.
- ④ 닭의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닭을 개벽의 순간에 광야에 울리는 지고한 소리의 매개체로 파악한다.

정답: ④

- 출제영역: 독해 → 내용 추론
- 세부유형: 세부 내용 이해 및 관점 비교
- 난도: 중
- 출제의도

제시문에서 대비되는 두 해석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 입장의 ‘들렸으랴’, ‘어데’, ‘닭’에 대한 해석 차이를 종합하여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선지해설

- ① “어데”를 ‘어디선가’로 해석하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라고 이해한다. → 적절하다. 본문에서는 “들렸으랴”를 ‘들렸으리라’의 축약형으로 보는 입장에서 **‘어데’를 ‘어디선가’**로 해석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닭 울음소리가 실제로 들렸다고 이해하는 입장이다.
- ② 1연 3행을 수사적 의문으로 보는 입장은 개벽의 시간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 적절하다. ‘들렸으랴’를 ‘들렸겠는가?’라는 수사적 의문으로 해석하는 입장은 닭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며, 첫 연을 정적이 흐르는 광야로 이해한다.
- ③ “들렸으랴”를 ‘들렸으리라’의 축약으로 보는 입장은 닭의 울음소리를 개벽을 알리는 소리로 파악한다. → 적절하다. 본문에서는 닭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입장이 실제 동물로서의 닭보다 새벽을 알리는 소리의 매개체로 이해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개벽을 알리는 상징적 소리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 ④ 닭의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입장은 닭을 개벽의 순간에 광야에 울리는 지고한 소리의 매개체로 파악한다. → 적절하지 않다. 본문에서 지고한 소리의 매개체로서 닭을 해석하는 것은 닭 울음소리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반대로 닭 울음소리를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닭을 단순히 소리를 내어 우는 실제 동물로 이해하며, 개벽의 순간에는 닭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두 입장을 뒤바꾼 설명이다.

15.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찾아가는 민원 사업은 잘 준비되고 있나요? 방문이 확정된 사업장은 어디죠?

을:방문 후보인 사업장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주민도서관에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병: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다문화센터에 방문한다면, 전통시장에 방문해야 합니다.

정:그리고 행사 계획상 .

갑: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면, 전통시장은 반드시 방문하겠네요.

- ① 전통시장에 방문한다면 주민도서관에도 방문해야 합니다
- ②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한다면 다문화센터에도 방문해야 합니다
- ③ 다문화센터와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은 방문해야 합니다
- ④ 다문화센터는 방문하면서 아동돌봄센터는 방문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답: ③

- 출제영역: 논리 → 조건 추론
- 세부유형: 조건명제와 선언명제의 결합 추론
- 난도: 중상
- 출제의도

제시된 대화 속 조건들을 논리식으로 정리하고, 이미 확정된 정보와 추가 조건을 결합하여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선지해설

- ① ‘전통시장에 방문하면 주민도서관에도 방문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미 주민도서관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조건만으로 전통시장 방문이 확정되지 않는다.
- ②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면 다문화센터에도 방문한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미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이 조건은 전통시장 방문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 ③ ‘다문화센터와 주민도서관 중 적어도 한 곳은 방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을의 말에서 주민도서관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다문화센터 방문이 확정된다. 또한 병의 말에 따라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다문화센터에 방문하면 전통시장에 방문해야 하므로, 전통시장 방문이 반드시 도출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다.
- ④ ‘다문화센터에 방문하면서 아동돌봄센터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다. 이는 다문화센터에 방문하면 아동돌봄센터에도 방문한다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미 아동돌봄센터에는 방문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다문화센터 방문이 부정될 뿐 전통시장 방문은 도출되지 않는다.

16. 다음 글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흔히 사람들은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있으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달리 당신이 용을 보았고 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신의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환각을 보고 상상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용의 존재 여부가 우리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 아니며, 용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도 없기 때문에,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감각에 근거해 확실한 사실이거나, 우리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이거나, 입증할 논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따르자면, 내 앞에 있는 친구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믿는 것조차 합리적일 수 없다. 또한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내 앞에 있다고 믿는 것도 합리적일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 감각이나 의식에 근거한 확실한 사실도 아니고 이를 입증할 어떠한 논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믿는 행위의 합리성을 위 세 가지 조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은 옳지 않다. 만약 그 입장이 옳다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편적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① ㉠이 참이라면,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 ② ㉠이 거짓이라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 ③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은 약화된다.
- ④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이 있고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은 강화된다.

정답: ②

- 출제영역: 논리 → 논증 평가
- 세부유형: 귀류법(반증법)을 활용한 논증 평가
- 난도: 상
- 출제의도

제시문에서 제시한 기존 입장을 필자가 귀류법(반증법)으로 비판하는 논증 구조를 이해하고, 가정과 결론의 관계를 구별하여 각 선지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선지해설

- ① ㉠이 참이라면, 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 적절하다. ㉠은 '합리적인 믿음은 반드시 감각, 의식, 논증 중 하나에 근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부정하는 결론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용의 존재를 믿는 것도 반드시 비합리적이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이 거짓이라면,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조차 비합리적인 것이 된다.
→ 적절하지 않다. 필자는 기존 입장을 가정한 뒤, 그 결과로 '상식까지

비합리적이 된다'는 모순을 도출하여 기존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즉, 이는 귀류법에서의 가정적 결론일 뿐 실제 사실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현실의 사실인 것처럼 단정한 이 선지는 부적절하다.

- ③ 우리 삶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믿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은 약화된다.

→ 적절하다. 필자의 핵심 논거는 '상식까지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데 있다. 만약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기존 입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사라지므로 ㉠의 주장도 약화된다.

- ④ 도깨비의 존재 여부를 입증할 논증이 있고 도깨비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은 강화된다.

→ 적절하다. 기존 입장은 '논증이 존재하면 합리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 입장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 주는 사례가 되며, 필자의 논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17.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다.
-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

- 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 ②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된다.
- ③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 ④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정답: ④

- 출제영역: 논리 → 조건 추론
- 세부유형: 조건명제의 대우를 이용한 연역 추론
- 난도: 중
- 출제의도

제시된 조건명제를 논리식으로 정리한 뒤, 대우(contrapositive)를 활용하여 반드시 참이 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여러 조건명제를 연쇄적으로 연결하고,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필요한 결론을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어야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된다. 그러나 제시된 조건만으로는 이러한 전제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를 반드시 도출할 수는 없다.
- ② 금리가 인상되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된다.
→ 적절하지 않다. 첫 번째 조건은 '금리 인상과 통화량 동결'이 소비 심리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의 충분조건일 뿐이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가 인상되고 통화량이 동결되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
- ③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 적절하지 않다. 대우를 적용하면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는 결론만 도출된다. 두 조건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나치게 강한 결론이다.
- ④ 금리가 인상되지 않거나, 시중 통화량이 동결되지 않는다.
→ 적절하다. (정답)
논리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금리 인상 $\wedge$ 통화량 동결) → 소비 심리 위축
 - 소비 심리 위축 → 물가 상승률 둔화
 - 물가 상승률 둔화 →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의 대우를 적용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음 → 소비 심리 위축되지 않음
이를 다시 첫 번째 조건의 대우에 적용하면, 소비 심리 위축되지 않음 → 금리 인상되지 않거나 통화량 동결되지 않음
따라서 반드시 참인 결론은 ④이다.

1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훈민정음의 초성자는 모두 17자인데 초성자의 창제 원리는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당시 음운 이론에서는 자음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는 이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기본자 ‘ㄱ, ㄴ, ㄷ, ㄱ, ㅅ, ㅇ’을 만들었다.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뜨는, 즉 상형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들었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설음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순음 ‘ㄷ’은 ‘입 모양’을, 치음 ‘ㄱ’은 ‘이 모양’을, 후음 ‘ㅇ’은 ‘목구멍 모양’을 각각 본떴다.

그다음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가획의 원리는 각각의 기본자에 획을 더할수록, 그 소리가 더 세어진다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ㄴ → ㄷ → ㄸ’, ‘ㄱ → ㅋ → ㆁ’, ‘ㅇ → ㆁ → ㆁ’ 등이 있다. 이때 획이 더해져 만들어진 초성자는 기본자와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그런데 가획의 원리로 모든 초성자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ㄱ’은 ‘ㄴ’에, ‘ㄷ’은 ‘ㄱ’에 획을 더하여 만들어졌지만 소리의 세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ㅇ(엠티음)’은 아음이지만 기본자 ‘ㄱ’과 글자 모양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 이들 ‘ㄱ, ㄷ, ㅇ(엠티음)’을 이체자라고 한다.

- ① ‘ㅇ(엠티음)’과 ‘ㆁ’은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 ② ‘ㄷ’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어졌다.
- ③ ‘ㄷ’보다 ‘ㄸ’이 소리가 세고, ‘ㄱ’보다 ‘ㅋ’이 소리가 약하다.
- ④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의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어 기본자를 정하였다.

정답: ④

- 출제영역: 문법 → 훈민정음 창제 원리
- 세부유형: 초성자 제자 원리 이해 및 내용 추론
- 난도: 중
- 출제년도

훈민정음 초성자의 창제 원리인 상형의 원리와 가획의 원리를 이해하고, 기본자·가획자·이체자의 관계를 글의 내용에 근거하여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선지해설

- ① ‘ㅇ(엠티음)’과 ‘ㆁ’은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 적절하다. ‘ㅇ’은 아음이고, ‘ㆁ’은 후음 계열이다. 따라서 두 글자는 소리 나는 위치가 다르다.
- ② ‘ㄷ’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에 획을 더해 만들어졌다.
→ 적절하다. ‘ㄷ’은 치음 기본자인 ‘ㄱ’에 획을 더해 만든 이체자이다. ‘ㄱ’은 이 모양을 본떠 만든 기본자이다.
- ③ ‘ㄷ’보다 ‘ㄸ’이 소리가 세고, ‘ㄱ’보다 ‘ㅋ’이 소리가 약하다.
→ 적절하다. 가획의 원리에 따르면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세어진다. ‘ㄴ → ㄷ → ㄸ’이므로 ‘ㄸ’이 ‘ㄷ’보다 세고, ‘ㄱ → ㅋ → ㆁ’이므로 ‘ㄱ’은 ‘ㆁ’보다 약하다.
- ④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의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어 기본자를 정하였다.
→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는 당시 음운 이론에 있던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기본자 ‘ㄱ, ㄴ, ㄷ, ㄱ, ㅅ, ㅇ’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이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글의 내용과 다르다.

19. 다음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알레르기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신체 외부의 물질을 적으로 오인하여 과민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흔히 개인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정상적인 면역 체계가 발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친 위생 습관이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고 여긴다. 하지만 우리 면역 체계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수렵·채집 시절부터 공생해 온 ‘오랜 친구들’이라 불리는 유익한 미생물의 도움으로 발달하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 체계는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컴퓨터 학습 시스템과 유사해서 데이터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논밭과 동산이 있는 자연환경인 전원에는 수백만 년 동안 인류와 함께해 온 유익한 공생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면역 체계에 일종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면역 체계는 햇빛이나 꽃가루 같은 무해한 물질에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발달하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나 목욕 같은 위생 습관은 가정 내 미생물 구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다. 즉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의 지나친 위생 습관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유익한 공생 미생물 환경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과 격리된 도시 생활은 이러한 노출을 막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 ① 자연과 격리된 도시에서 개인 위생용품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
- ② 동일한 전원에서 자란 두 집단의 아이들을 비교할 때, 거주지의 위생 상태가 나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
- ③ 주거지의 위생 상태가 유사한 아이들을 비교할 때, 전원에서 오래 생활한 아이일수록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다.
- ④ 어린 시절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인이 된 후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정답: ③

- 출제영역: 독해 → 논증 평가
- 세부유형: 논지 강화
- 난도: 중상
- 출제년도

제시문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파악한 뒤, 이를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특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주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근거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선지해설

- ① 자연과 격리된 도시에서 개인 위생용품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
→ 적절하지 않다. 글은 지나친 위생 습관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공생 미생물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위생용품 소비량과 알레르기 발병률의 관계는 글의 핵심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논지를 강화하지 못한다.
- ② 동일한 전원에서 자란 두 집단의 아이들을 비교할 때, 거주지의 위생 상태가 나쁠수록 알레르기 질환 발병률이 낮았다.

- 적절하지 않다. 이 선지는 위생 상태가 나쁠수록 알레르기가 적다는 결과를 제시하므로, 알레르기의 원인을 위생 수준에서 찾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자연환경의 공생 미생물 노출이 핵심 원인이라는 글의 논지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
- ③ 주거지의 위생 상태가 유사한 아이들을 비교할 때, 전원에서 오래 생활한 아이일수록 알레르기 질환의 발병률이 낮았다.
- 적절하다. (정답) 이 선지는 위생 상태를 동일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전원 생활 기간만 비교하고 있다. 전원에서 오래 생활할수록 공생 미생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알레르기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알레르기는 위생 습관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유익한 미생물 노출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는 글의 핵심 주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강화한다.
- ④ 어린 시절 알레르기 질환을 앓았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인이 된 후 알레르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
- 적절하지 않다. 이 선지는 알레르기 질환의 재발 가능성을 설명할 뿐,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환경과 공생 미생물의 역할을 주장하는 글의 논지를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0.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 한 줄 서기보다는 두 줄 서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고, 에스컬레이터 주변의 혼잡을 줄일 수도 있어. 개인의 이동 속도보다 전체적인 효율을 우선해야 해.

승현: 물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좋지. 그런데 두 줄로 서면 급한 사람은 빨리 이동하기 어렵잖아. 이동이 급한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두는 배려가 효율보다 우선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해.

범주: 에스컬레이터 줄 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두 사람이 고려하는 기준 모두 나름의 일리가 있어. 그런데 혼잡한 시간대에는 두 줄로 서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을 때까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시라: 안전도 고려할 중요한 기준이지. 한 줄 서기를 해서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 두 줄 서기를 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승현: 그러고 보니 에스컬레이터에 한쪽으로만 설 경우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에 부담을 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어. 안전이 최우선이니만큼 항상 두 줄 서기를 해야겠네.

범주: 안전이 중요하니까 혼잡할 때는 두 줄 서기를 해야겠지. 하지만 혼잡하지 않을 때에는 이동이 급한 사람을 배려해서 한 줄 서기를 해야지.

- 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 시라와 승현은 동의한다.
- ② 혼잡 정도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범주는 동의한다.
- ③ 시라와 승현은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
- ④ 안전 면에서는 두 줄 서기가 낫다는 점에 대해 시라, 승현, 범주는 모두 동의한다.

정답: ③

- 출제영역: 독해 → 대화 분석
- 세부유형: 대화 참여자의 입장 및 관점 비교
- 난도: 중
- 출제외도

대화 참여자들의 주장과 근거를 비교·분석하여 각 인물의 핵심 주장, 판단 기준의 변화,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 선지해설

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 시라와 승현은 동의한다.

→ 적절하다. 시라는 처음부터 두 줄 서기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이 이동할 수 있어 전체적인 효율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승현도 "물론 두 줄 서기가 전체적으로 효율이 좋지."라고 말하며 효율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승현은 효율보다 급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② 혼잡 정도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범주는 동의한다.

→ 적절하다. 범주는 처음부터 혼잡한 시간에는 두 줄 서기가 효율적이지만, 혼잡하지 않을 때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에도 혼잡할 때는 두 줄 서기, 혼잡하지 않을 때는 한 줄 서기를 제안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③ 시라와 승현은 고려하는 기준에 따라 줄 서기 방식을 바꾸는 것에 동의한다.

→ 적절하지 않다. (정답) 시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효율성과 안전을 이유로 항상 두 줄 서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반면 승현은 처음에는 배려를 우선하여 한 줄 서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항상 두 줄 서기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즉, 시라는 상황에 따라 방식을 바꾸자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 모두 줄 서기 방식을 상황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은 아니다.

④ 안전 면에서는 두 줄 서기가 낫다는 점에 대해 시라, 승현, 범주는 모두 동의한다.

→ 적절하다. 시라는 두 줄 서기가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승현도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항상 두 줄 서기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범주 역시 안전이 중요하므로 혼잡할 때는 두 줄 서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전 측면에서는 세 사람 모두 두 줄 서기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